

2개월 연속 3%대 소비자물가...4월엔 상승세 꺾일까

4월 농산물 가격도 안심못해...3개월 연속 고물가 '유력' 3월 온라인 쇼핑 두자릿수 증가율·축수산물 판매 관심

2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보였던 소비자물가가 4월엔 안정세를 보일지 주목된다. 정부가 3월 중순 이후부터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 만큼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세는 주춤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약재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인 수입물가는 요동치는 국제유가 파장에 상승폭을 키워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원인으로 꼽힌다.

통계청은 다음 달 2일 '4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3%대 상승률을 기록했다가 올

해 1월 2%대로 하락했지만 2월(3.1%), 3월(3.1%) 등 2개월 연속 3%대를 보였다.

특히 농축수산물 가격 강세가 지속되면서 물가 상승을 주도하자 정부는 납품단가 지원과 할인지원, 과일 직수입 등 긴급 가격안정 자금 1500억원을 투입하며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추진했다.

4월 농산물 가격은 서서히 하향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다만 3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라 물가 가중치가 가장 큰 석유류 가격이 급등세를 보였을 수 있고 가공식품, 서비스 등의 가격 강세로 4월 소비자물가도 안심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통계청이 다음 달 1일 발표할 '3월 온라인 쇼핑 동향'도 관심이 있다. 올해 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대비 11.0%(1조8856억원) 증가한 18조9766억원을 기록했다. 5개월 연속 20조원 돌파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두 자릿수 증가율은 지속했다. 축수산물은 2021년 1월 이후 37개월만에 최대 증가율을 보였다. 오프라인 쇼핑 대비 거래의 편리성이 있고 가격 경쟁력이 높다는 점을 앞세워 오프라인 판매 비율이 높았던 상품에 대한 구매율도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사의 국내 시장 진출과 이용자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쿠팡 등 국내 기업들의 프로모션 확대에 힘입어 온라인쇼핑 거래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달 30일에는 2024년 3월 산업활동동향이 공개된다. 2월 전(산)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5.3(2020년=100)으로 전월보다 1.3% 증가했다.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셈이다.

전월보다 3.4% 상승한 제조업을 비롯해

반도체(4.8%), 기계장비(10.3%), 전자부품(12.5%) 등에서 증가세를 보였고 통신·방송장비(-10.2%), 담배(-6.2%), 음료(-3.2%) 등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 지수의 변화도 관심사이다. 2월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4.8%) 판매가 줄어들며 전월 대비 3.1% 감소했다. 3월에 반등하지 못하면 고물가·고금리가 소비심리를 짓누르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기재부는 30일 3월 국제수입 현황을 발표한다. 관심은 법인세 수입이 예상치를 달성했는지 여부다. 법인세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해처럼 올해도 세수평가가 현실화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지속적인 감세 정책도 도마에 오를 수 있다.

대체적인 견해는 지난해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았고 기업의 실적 악화 등을 고려할 때 법인세 감소가 뚜렷할 수 있다고 모아진다. 전체 국제수입의 25% 가량을 차지하는 법

인세 감소로 인한 세수 펑크 재현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연간 법인세는 80조4000억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22.4% 감소했고 이에 따라 전체 국제 대비 법인세 비중은 23% 수준을 보였다. 올해는 법인세 비중이 더욱 감소해 20%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음 달 2일 5월 세계경제전망을 내놓는다. 앞서 OECD는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그만큼 한국 경제 전반에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는 의미로 볼 여지가 많다.

다만 한국은행은 지난 25일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3%를 나타내는 등 예상치를 상회한 만큼 이번 세계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이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수권기자

농식품부, '찾아가는 양조장' 4곳 선정

사전 맞춤형 컨설팅...지역 대표 문화공간으로 육성

전통주에 대한 소비자 접점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직접 지역관광과 연계한 문화공간으로 육성하는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에 4곳이 신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찾아가는 양조장 4개소를 신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지역의 우수 양조장을 선정, 전통주 시음 및 만들기 체험뿐만 아니라 지역관광과 연계한 문화 공간으로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양조장은 총 4곳으로, 경북 안동시 소재 '밀과노닐다'와 '민속주 안동소주', 충북 영동군 '갈기산포도농원', 전남 나주시 '다도참주가'이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지자체가 추천한 18개 양조장을 대상으로 양조장의 역사성,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및 주변 관광요소, 업체의 술 품질인증 보유 여부, 각종 전통주 품평회 수상 이력 등 양조장의 기능성과

체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선정된 양조장은 2년간 주류 및 관광 분야 등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으로 체형장 및 판매장 등 환경개선, 체험 프로그램 개발, 홈페이지 등 홍보 시스템 구축, 지역사회 연계 관광 상품화 등이 지원된다.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이번이 신규 지정업체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총 59개소가 운영중이며 전통주 만들기 체험 및 시음, 인근 관광 연계 등을 통해 일반소비자의 전통주에 대한 접점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최근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찾아가는 양조장이 지역의 대표 문화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체계를 보완하고 컨설팅과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휘발유 가격 5주 연속 상승' 4.4원 올랐다.

지난 28일 서울 시내의 주유소에서 한 시민이 주유를 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넷째 주 기준 휘발유의 평균 판매 가격은 L당 1708.4원으로 전주 대비 13.3원 상승했으며, 경유는 1566.7원으로



광주농협 브랜드 쌀 '빛찬들' 독일간다

광주농협통합RPC, 호주·뉴질랜드 이은 두 번째 성과

광주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광주농협통합RPC)의 쌀 해외 수출이 잇달아 성사되면서 광주 대표 브랜드 쌀 육성 사업에 순풍이 불고 있다.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26일 광주통합RPC에서 '빛찬들 궁담쌀' 18t을 처음으로 독일 베를린으로 실어 보내는 수출 선적식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사는 이현호 농협 광주총괄본부장을 비롯해 지역 7개 농협 조합장, 허정규 NH농협무역 전무이사, 이선학 광주농협통합RPC 대표이사, 남택송 광주시 농업동물정책 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수출은 광주통합RPC가 지난해 호주·뉴질랜드 수출에 이은 두 번째로 Asia H&S GmbH 유한책임회사 현지 마켓과 긴밀한 협

업 끝에 성사됐다.

농협광주본부는 쌀 재고량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과 농업인 소득 감소에 대응해 광주통합RPC와 함께 해외시장 수출이라는 새로운 판로개척에 힘을 쏟고 있다.

수출 확대는 농업인 소득 증대와 함께 광주 대표 쌀 '빛찬들'이 세계적인 브랜드 쌀로 입지를 다지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다.

이현호 농협 광주본부장은 "지속적인 쌀 소비량 감소와 가격 하락에 대응해 해외 판로 개척에 애써준 광주통합RPC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농협광주본부는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으로 광주 쌀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변용일기자

전국 시가총액 상위 50위 아파트 매매가격 2개월째 상승

KB부동산 4월 주택시장동향 공개

전국의 상위 50개 고가 대단지 아파트인 선도아파트의 매매가격이 전월대비 0.12%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들어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 가격은 모두 보험권에 수렴했으며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도 하락세가 둔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KB부동산이 28일 발표한 월간 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위 50개 아파트 단지의 가격을 수치화한 '선도아파트 50 지수'는 전월 대비 0.12% 오르며 2개월째 상승세를 보였다.

선도아파트 50 지수는 2023년 11월 0.46%→2023년 12월 -0.14%→2024년 1월 -0.22%→2024년 2월 -0.06%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2024년 3월 0.01%→2024년 4월 0.12%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KB부동산은 전국 아파트단지 중 세대수와 가격을 곱한 시가총액 상위 50개 단지를 매년 선정해 시가총액 지수와 변동률 추이를 도출하고 있다.

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이 가장 민감하게 나타나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장을 선형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척도다.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03%로 미미한 하락을 보이면서 보험권에 다다랐다. 전세 가격도 보험권을 보였다. 서울은

아파트 매매가 -0.17%로 하락이 둔화되고, 전세가 0.62% 상승을 유지했다.

수도권은 전월대비 보험으로 유지됐다. 5개 광역시(-0.07%)는 미미하게 하락했고 기타지방(-0.06%)도 미미한 하락을 보였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0.00% 보험, 인천 -0.06% 하락했다.

인천(-0.06%)을 제외한 지방 5개 광역시는 대구(-0.16%), 부산(-0.08%), 광주(-0.06%)은 하락했고, 대전(0.01%), 울산(0.07%)은 상승했다.

서울 주택 매매가격을 구별로 살펴보면 양천구(0.59%), 중구(0.48%) 마포구(-0.31%), 강동구(0.07%), 용산구(0.06%) 등 일부지역이 상승하였고, 도봉구(-0.07%), 서대문구(-0.03%), 노원구(0.03%), 금천구(-0.03%), 중랑구(-0.03%), 관악구(-0.02%) 등은 하락했다.

경기(0.0%)는 지난달 대비 보험을 보였고, 인천(-0.06%)은 하락폭이 축소됐다. 경기도지역은 과천(0.39%), 시흥(0.16%), 평택(0.12%), 수원 영통구(0.05%) 등은 상승했고, 광명(-0.12%), 고양 일산동구(-0.11%), 성남 수정구(-0.09%), 안양 동안구(-0.05%), 수원 팔달구(-0.03%) 등이 하락했다.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보험을

기록했다. 서울(0.06%)은 지난달 대비 소폭 상승했고, 경기(0.02%)도 지난달 대비 미미하게 상승, 인천(0.05%)도 미미한 상승, 수도권(0.04%)이 전월대비 소폭 상승했다.

서울의 전세가격은 지난달보다 상승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서울의 구별로 살펴보면, 마포구(0.31%), 양천구(0.31%), 강남구(0.15%), 동대문구(0.12%), 성동구(0.12%) 등이 상승했고, 강동구(-0.15%), 서대문구(-0.04%), 금천구(-0.03%), 구로구(-0.02%)는 하락했다.

경기도의 전세가격은 김포(0.15%), 광명(0.13%), 부천 소사구(0.10%), 의정부(0.10%), 용인 기흥구(0.09%) 등은 상승했고, 평택(-0.27%), 과천(-0.20%), 파주(-0.06%), 이천(-0.03%), 용인 처인구(-0.02%)는 하락했다.

서울의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기준점 100에 가까운 99를 기록했다. 6개월 연속 하락 전망이었으나 지난 1월(80)부터는 꾸준히 상승 전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KB부동산 가격 전망지수는 전국 6000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지역의 가격이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전망에 대한 조사를 통해 0~200 범위의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지수가 100을 초과할 수록 상승 전망의 비중이 높고 100에 미치지 못할수록 하락 비중이 높다는 의미다.

이슬비기자